



등록번호	의정담당관 71523
등록일자	2016.12. 30
결재일자	2016.12. 30
공개여부	공 개
담당부서	전문위원: 김설연 담당자: 이후영

담당자	기획행정 전문위원	기획행정 위원장	부의장	의장	결재
이후영	김설연 강주원	이후영	이성우	이성우	
협조	의회운영위원장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팀장 김종수	사무국장 김진용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진용 의사팀장 조재원			

## - 2016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기 간: 2016. 10. 21.(금) ~ 10. 28(금)

■ 장 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 - 2016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 1. 연수 개요

1. 연수기간: 2016. 10. 21.(금) ~ 10. 28.(금) 【6박 8일】

2. 연수국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 3. 연수목적

- 선진국의 문화·예술, 역사, 사회관습, 행정제도 등을 현지 선진문화 체험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함.
- 동유럽 주요 도시의 행정조직, 지역특화 전략사업, 도시개발, 교통,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과 자족기능성 등 자치도시의 성장배경과 운영방향 비교 시찰.

### 4. 연수인원: 총 10명(의원 7명, 전문위원 1명, 주무관 2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1	의회사무국	위원장	강주내	여
2	"	부위원장	박상준	남
3	"	위 원	유선종	남
4	"	"	윤용석	남
5	"	"	이영희	남
6	"	"	이윤승	여
7	"	"	조현숙	여
8	"	전문위원	김설연	남
9	의정담당관	주무관	이후영	남
10	"	"	김진하	여

## 2. 연수 주요 일정

일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10.21 (금)	프라하	13:10 16:15 19:20 2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출발</li> <li>○ 모스크바 공항 도착(경유)</li> <li>○ 모스크바 공항 출발</li> <li>○ 프라하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CLARION CONGRESS(프라하)</p>	중:기내식 석:기내식
10.22 (토)	프라하  짤즈 부르크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프라하 시내이동</li> <li>○ 주요 역사·문화 및 선진시설 견학</li> <li>▶ 교통수단 트램 탑승체험, 바츨로프광장, 텐교회, 흐라트차니 광장, 성비트 교회</li> <li>▶ 프라하 의회 견학</li> <li>○ 짤즈부르크 이동</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AUSTRIA TREND (짤즈부르크)</p>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10.23 (일)	짤즈 부르크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이동</li> <li>○ 주요 역사·문화 및 선진시설 견학</li> <li>▶ 구시청사, 레지던츠광장, 대성당, 호헨 짤츠부르크성, 간판거리 게트라이드가세, 할슈타트 마을</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AUSTRIA TREND (짤즈부르크)</p>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10.24 (월)	비엔나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비엔나 이동</li> <li>○ 주요 역사·문화 및 선진시설 견학</li> <li>▶ 게슈타트 '스마트시티' 간담회</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AUSTRIA TREND (비엔나)</p>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10.25 (화)	비엔나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이동</li> <li>○ 주요 역사·문화 및 선진시설 견학</li> <li>▶ 빈 국회의사당, 케른트너 거리, 슈테판 성당, 비엔나 국립오페라 하우스</li> </ul>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동</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PARK INN BY RADISSON (부다페스트)</p>	
10.26 (수)	부다 페스트	0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이동</li> <li>○ 주요 역사·문화 및 선진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마诧시교회, 시민공원</li> </ul> </li> <li>○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li> </ul> <p>HOTEL: PARK INN BY RADISSON (부다페스트)</p>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10.27 (목)	부다 페스트	12:55 16:25 2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 후 이동</li> <li>○ 공항 수속</li> <li>○ 비엔나 공항 출발 (2시간 30분 소요)</li> <li>○ 모스크바 공항 도착 및 환승</li> <li>○ 모스크바 공항 출발 (8시간 15분 소요)</li> </ul>	조:호텔식 중:기내식 석:기내식
10.28 (금)	인천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도착</li> </ul>	조:기내식

### 3. 방문도시 일반현황



수 도	프라하 (Praha)	언 어	공용어: 체코어 상용어: 영어, 독일어
인 구	약 1,062만명	화 폐	코루나
주요민족	체코인(96%),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바키아인(0.7%), 기타(2%)	면 적	7만 8,864km <sup>2</sup>
주요도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종 교	카톨릭(39.2%), 개신교(6.2%), 희랍정교 (3.4%), 무교(40%)

## 2.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 현황



수 도	빈 (Wien)	언 어	공용어: 독일어
인 구	약 810만명	화 폐	유로(Euro)
주요민족	게르만족(97%), 슬라브족 등	면 적	8만 3,857km <sup>2</sup>
주요도시	비엔나, 짤츠 부르크, 짤츠 카머 굿트	종 교	카톨릭(85%), 개신교(6%), 기타(9%)

### 3. 헝가리(Republic of Austria) 현황



수 도	부다페스트 (Budapest)	언 어	헝가리어
인 구	약 992만명	화 폐	포린트(HUF)
주요민족	헝가리인(93%), 로마인(2%)등	면 적	9만 3,028km <sup>2</sup>
주요도시	부다페스트, 데브레첸	종 교	카톨릭(51.9%), 신교(15.9%), 기타(32.2%)

## 4. 방문도시 견학 내용

### 1 체코 프라하



#### ① 프라하 의회

1968년 민주자유화운동을 상징하는 ‘프라하의 봄’의 중심지. 스탈린주의자들의 보수정책에 반발한 체코 내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민주, 자유화의 실현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민주·자유화노선을 제창하는 강령을 채택한다. 당시 재판의 독립,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 등 여러 민주적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프라하의회는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와 비판의 장이 되는 등 구심적 역할을 했다. 프라하의회는 현재 중요한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 ② 틴교회

프라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로, 1365년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변형을 거쳐 17세기까지 다양한 건물양식이 가미되었다. 외관은 고딕양식으로 지어져 정교하면서도 화려하고 특히 80m높이까지 치솟은 2개의 첨탑은 이 교회의 상징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다.

### ③ 바츨로프 광장

블타바 강 왼쪽 지구로 중세 시대 카를 4세에 의해 조성된 신시 가지에 속한다. 원래 마(馬) 시장이 섰던 곳이며 광장 가운데 사형대가 세워졌던 역사도 있다. 너비 60m, 길이 750m의 광장은 엄밀히 말하면 광장이라기보다 드넓은 대로에 가깝다. 현재는 중앙 녹지를 경계로 차도와 인도가 나뉘어 있다. 광장 이름은 체코의 최초 왕조인 프르셰미슬 왕가의 왕 바츨라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체코 기독교의 상징적 인물이다. 광장 동남단에 성 바츨라프의 기마상이 성인 4명의 수호를 받으며 서 있다.

## 2 오스트리아

### ① 게슈타트



2011년 빈 시의회 도시개발계획부에서 발표한 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의해, 과거 비행장으로 쓰였던 아스페른 지역의 2,400 만m<sup>2</sup>를 중심으로 조성된 스마트도시. 지질학적으로 지열에너지 이용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5,000m<sup>2</sup>의 호수를 끼고 있어 미래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한 지열에너지 및 태양에너지 확보에 있어 유리한 이점이 있어 맨 처음 스마트도시로 조성되었다.

## □ 스마트 시티(게슈타트)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6. 10. 24.(월) 14:00 ~ 17:00
- 참 여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명, 아스페른 관계자 2명
- 주 제 : 오스트리아 스마트시티 조성 벤치마킹
- 간담회 순서
  - 아스페른 관계자 “스마트시티 조성” 소개
  - 질의 · 응답
  - 스마트시티 견학 (버스)

## ② 할슈타트 마을

잘츠카머구트(Salzkammergut) 지역에 있는 도시로, 할슈테터호 (Hallstätter Lake) 가까이 위치해 있다. 도시명의 ‘hal’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salt)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소중한 자원인 소금을 통해 역사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다. BC10~5세기에 할슈타트문화가 발달했고 할슈타트 분묘군 유적이 남아 있다. 도심 위쪽에는 B.C 2000년경 형성된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이 있다. 1311년부터는 도시에 장이 서기 시작했고, 1595년 소금산업의 중심지가 40km 떨어진 에벤호(Eben L.)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관광업이 도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슈테터호는 호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명하다. 근처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희고 높은 산’이라는 뜻의 다흐슈타인산(3,800m)이 있다. ‘할슈타트-다흐슈타인 잘츠카머구트 문화경관(Hallstatt-Dachstein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은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③ 미라벨 정원

잘츠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으로, 중앙역에서 라이너슈트라세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오른쪽에 있다. 미라벨 궁전은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 지었으며, 당시는 알트나우라고 불렸다. 후임자인 마르쿠스 시티쿠스 대주교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정원은 1690년 바로크 건축의 대가인 요한 피셔 폰 에를라흐 (Johann Fischer von Erlach)가 조성하였고, 18세기에 건축가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Johann Lukas von Hildebrandt)가 개조하였으나 1818년 화재로 파괴된 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예전에는 궁전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 개방하고 있다.

### ④ 빈 시 의회, 시 청사



1883년 완성된 시청사인데 구시가에 위치한 구청사를 대신해 신시청사라 부른다. 고딕풍의 아름다운 건물은 네오고딕 건축의 명수인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가 지은 것으로 독일의 시청사 건축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빈을 대표하는 장소로, 대형 트리와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된다.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장이 열린다. 빈 시장 및 빈 시의회가 집무를 수행하는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빈이 주와 지위를 갖기 때문에 빈 시의회는 즉 주의회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스마트시티 관련 간담회 내용]

### ○ 스마트시티(게슈타트) 소개 (빈3420 관계자)

- 빈프로젝트는 비엔나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하 티나비엔나라는 사업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빈 3420이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게슈타트라는 현재 개발도시는 1960년대까지 공항이었으나, 오스트리아가 EU에 가입하면서, 많은 일자리와 주택이 필요하게 되자 현재 위치가 도시개발로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유럽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가장 큰 도시개발중 하나이며, 2만 개의 일자리창출과 약2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스마트 도시사업을 추진 중.
  - 240헥타르정도의 면적에 약 25년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 게슈타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포인트는,
  - ① 친환경적인 에너지
  - ② 최대한 자동차의 사용을 억제
  - ③ 비엔나시와의 접근성 강화(트램, 버스, 지하철 등)
  - ④ 공원을 최대한 조성
  - ⑤ 도시면적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상 5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사업 진행 중.
- 스마트시티에 짓는 건물들은 거주, 일 개념을 넘어 쇼핑, 유치원, 교육 등 복합시설공간으로 추진 중이며, 자연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연을 느낄수 있는 컨셉하에 스마트도시 조성 중.
- 특히 주안점을 둔 점은 교통에 관한 사항이며,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공용주차장 건설, 카쉐워링 권장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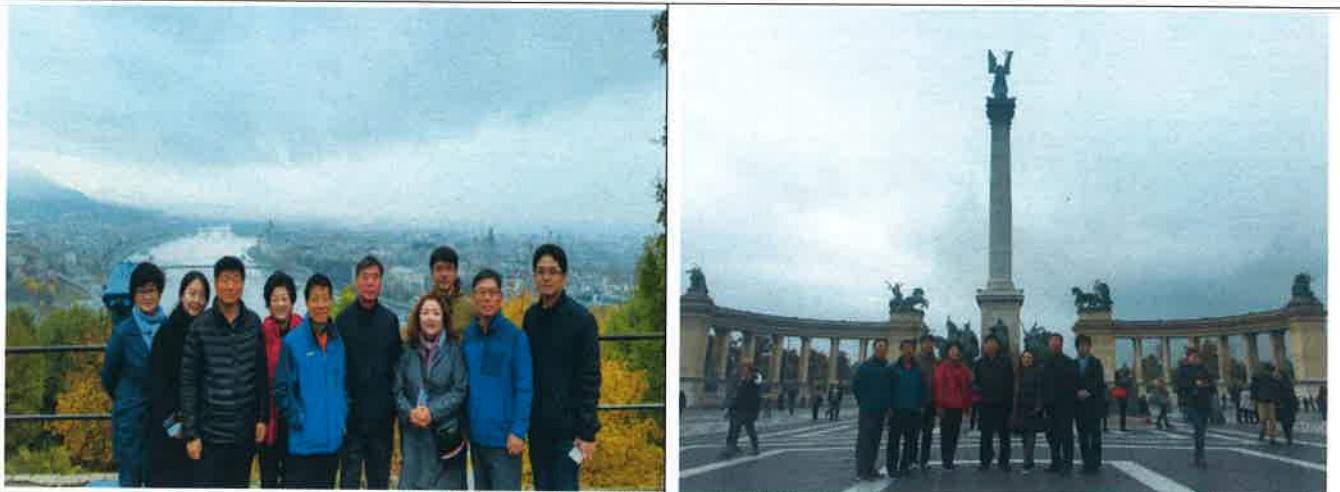
## ○ 주요 질의 · 응답 내용

### ■ 게슈타트내 친환경도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 (강주내 위원장) 2050년까지 장기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고자, 녹지공간을 50%이상 유지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을 대체할수 있는 방법, 또한 건물의 냉난방, 오수를 1인당 1%씩 줄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
- (관계자) 녹지공간이 5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장, 공원 기타면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오스트리아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수익성에 압박을 받지는 않았음.
- (윤용석 의원)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① 초창기 인구유입 계획, ② 계획된 인구규모는 얼마이며 일자리 사업의 컨셉, ③ 조성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강남과 같은 특권층의 도시가 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 (관계자) ① 인구유입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아스콘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조성과 관련한 5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 하였음.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지난 5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는데,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은 오스트리아에 드문 곳이어서 플러스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인구규모는 지금 현재 약 6천명이며, 2030년까지 25,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③ 오스트리아는 대부분의 유럽에서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도시입주와 관련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3 형가리

#### ① 부다페스트 의회



기존에 있었던 의회빌딩이 아닌 1885년에 새롭게 짓기 시작하여 1904년에 완공되었다. 4,000억개의 벽돌과 50억개의 보석, 40kg의 금으로 지어졌으며, 전쟁과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1989년부터 다시 형가리 의회역할을 하고 있다. 현존하는 부다페스트 내 가장 넓고 높은 건물로서, 길이가 268M이며 T자 모양이다.

#### ② 부다페스트 영웅광장

영웅 광장(Hősök tere)은 벨바로시에서 부다페스트의 문화 거리인 안드라시 거리를 지나 그 끝에 있는 것으로, 형가리 1천 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징물이다.

영웅 광장 가장 자리엔 열주(列柱)로 이뤄진 구조물이 반원형으로 만들어져 왼쪽에 7명, 오른쪽에 7명 등 모두 14명의 청동 입상이 서 있다. 열주가 시작되는 왼쪽 열주의 위에는 노동과 재산, 전쟁의 상징물이, 오른쪽 열주가 끝나는 윗부분엔 평화,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상이 있다. 이 열주 기념물은 바로 뒤편에 있는 시민공원인 바로시리게트에 있는데 영웅 광장은 그 입구처럼 보이게 설계 되었다.

## 5. 방문성과 및 시사점

---

-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한 이번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연수는,
  - 프라하, 짠즈부르크, 비엔나, 부다페스트의 각종 우수한 제도와 시설을 견학·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특히 오스트리아 빈 외곽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게슈타트'를 방문하여, 조성 목적/취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우리 시에 조성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는 의미있는 기회도 있었다.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연수단은 지난 6박 8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동유럽권 도시들에 대한 견학을 통해 고양시의 비전과 정책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 특히, 경쟁적인 지방자치환경 속에서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발굴해 지역발전과 104만 시민행복에 기여하는 좋은 밀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 금번 국외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